튀빙겐 후기

사회학과 송윤지

저는 2018/2019년 겨울학기 한 학기를 튀빙겐에서 보냈습니다. 튀빙겐 대학교는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많은 한국인 교환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조금 알고 가면 좋은 것들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1. 비용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돈 근 400만원과 그리고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처음 환전했을 때 1200유로를 해갔습니다. 하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한 달이면 거의 다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큰 금액만 보면 보증금 400유로('현금'으로 기숙사 입주 날에 납부하지만, 퇴실 전 한국계좌서류를 작성하여 기숙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나중에 '한국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어이없는 시스템입니다), 교통권 거의 100유로(학기 중 학생용 교통권은 거의 100유로이고 학기 시작 전에 독일에 일찍 온다면 한 달권 비용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거의 40유로로 기억합니다), 비자비용 50유로, 학생회비 거의 100유로, 그리고 초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 비용 등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한 달 비용은 한화로 거의 30~40만원씩 매일 빠져나갑니다. 충남대처럼 한 학기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처럼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 및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입니다(기숙사비는 당연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제가 튀빙겐에 입주해서 알게 되었던 것인데, Rundfunkbeitrag이라는 이름의 우편이 기숙사로 날아옵니다. 이것은 TV 및 라디오 수신료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일절 청취하지 않아도 독일에 거주한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한 학기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내지 않고 가는 학생들이 많지만, 저는 마음 편하게 플랫메이트 (기숙사 공용 시설 공유하는 이웃집학생들) 몇 명과 분담하여 지불하였습니다. 1 인당 지불이 아니라 1 가구 당 지불하는 비용이고 기숙사는 1 플랫 당 지불합니다. 비용은 3달에 53유로 정도입니다(3달치를 한번에 낸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는 점은 우편이 날아오는게 학생마다 복불복입니다. 우편을 받지 않은 학생은 아마 같은 플랫 다른 학생들이 내고 있는 경우일텐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Start-Kurs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스타트코스를 강력추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와 독일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결과,

필수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처리 부분에서 모르는 점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주시는 점은 좋습니다. 또한 튀빙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이 꽤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와의 국경인 'Bodensee'로의 여행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2단계 수업을 들었는데 제 독일어 선생님도 좋았습니다(1-4단계 구성, 4단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리를 '지도'만 해주시는 것이지 어차피 처리는 본인이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코스에서 만나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서로 물어보며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타트 코스의 가장 좋은 점이 많은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트코스 1을 수강하였는데 한국인 학생이 상당수였습니다. 친해져서 여러 정보도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여행도 함께 다니시고 식사도 함께 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스타트코스 1의 선생님(어학담당)들 튜터님들(튀빙겐 생활정보담당)은 모두 좋았습니다. 그러나 듣기로 제가 있던 학기 스타트 코스 2에서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고 인종차별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스타트 코스 추천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행정처리도 어차피 혼자 해야 하는데 인맥 쌓기도 어렵고(대부분의 경우 같은 인종끼리 어울립니다) 인종차별 따위나 당한다면 추천하기가 정말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아니고 400유로나 하는 프로그램인데 잘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스타트 코스를 듣지 않고 버디와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들으신다면 1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스타트코스가 좋다는 후기를 보고 1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3. 한국학과 프로그램

튀빙겐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스타트코스 선생님들이나 학생과 이외에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계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학과 장학금, 아게 프로그램(AG, 한국학과 신입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한국학과 탄뎀 프로그램(언어교환 및 한국학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프로그램, 일대일 혹은 일대다 매칭) 등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국학과 오티 때 잘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그 때 잘 들으시고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학과 장학금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한국인 학생들 중 5명 내외를 선발하여 500유로 정도를 지급합니다. 아게 프로그램은 경험 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칭되는 학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도 대부분 아게를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탄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싶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탄뎀은 중앙 탄뎀, 한국학과 탄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두 탄뎀 프로그램 다 신청하였습니다. 스타트코스에서 주는

책자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보고 중앙탄뎀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탄뎀 자체가 언어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은 어차피 한국학과 학생과 매칭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학과 탄뎀은 3학기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국인 교환학생과 매칭이 되고, 4학기에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어있습니다. 충남대에 오기로 한 학생은 충남대 학생들과 배정되는 방식으로,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귀국하더라도 한국학과 학생이 한국으로 가서 계속 인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학과 학생들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국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한국학과 탄뎀은 한국학생 1명 당 1명이 배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학기에는 모 학교에서 온 학생이 1명인데 그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한 한국학과 학생이 많아서 탄뎀이 한 명에게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버디는 스타트코스를 신청하면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버디는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타트 코스나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4. 그 외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점이 개강 시기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는 겨울학기에 있었는데 10월 15일에 시작해서 2월 초에 학기가 끝났습니다. 학기 끝나고 귀국준비 하고 여행 조금 하고, 한국에 가면 바로 개강입니다. 심지어 경영학 전공은 2월 말에 학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잊지 마시고 충남대 재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한 점 중 하나가 word 파일은 인쇄되지 않으니 무조건 pdf로 변환하여 인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린트는 주로 도서관에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출력 누르고 바로 인쇄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 2층, usb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있는 곳은 1층 뒤편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튀빙겐 학생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2층에서 인쇄가 잘 안 돼서 곤란한 경우가 자주 생기니 usb를 활용하여 1층에서 빠르게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빙겐 사람들 대부분 친절한 편입니다. 물론 우체국이나 슈퍼마켓 같은 곳 전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튀빙겐 안에만 있다면 인종차별은 제가 안 겪은 것은 아닙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독일이 그나마 소매치기가 없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아예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튀빙겐은 대학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편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초에 베를린 가지 마세요. 아니 독일에 있는 것을 아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숙사는 WHO에 거주하실텐데 2, 4, 6번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버스 다 튀빙겐의 상징인 네카다리에 갑니다. 튀빙겐 도착해서 버스 타신다면 저 세 버스 중 하나를 타십시오. 그리고 동네버스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구글 사용보다는 'Naldo'라는 어플을 활용하십시오.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위에서 언

급한 한 학기 교통권 ‘Semester Ticket’은 정해진 근교까지 무료로 갈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티켓사용가능 범위를 알려주는 날도어플 지도가 있어서 첨부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티켓과 축구장 티켓(바뎀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지만 제가 간 곳은 한 군데입니다)이 있으면 축구를 보러가실 때 교통비가 필요없습니다. 축구는 독일의 가장 큰 문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반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뮌헨이 아니더라도 전 지역에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기 때문에 꼭 뮌헨으로 가고 싶으신 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고 특히 취한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뮌헨 옥토버페스트는 가지 않았습니다.

※ 일단 생각나는 것 일부만 작성했는데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질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summer324@naver.com